

소 집이 사람 집으로... 우암동의 기구한 역사



김정휘의
스케치로 읽는 풍경

우암동 소막이야기

나이 드신 분들은 '적기수용소'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6·25전쟁 때 우암동에 있었던 피난민 수용소를 일컫는 말인데, 이 수용소가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이 만든 소 막사이다.

1909년 10월 조그만 어촌마을이었던 우암리(우암동)에 검역소와 소막이 만들어졌다. 전국에서 들어온 소들은 이곳에서 검사를 거친 후 일본 각 지역으로 보내졌다. 검역소를 만든 이유는 병에 걸린 소가 일본으로 건너가 전염병이 발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었고 또한 전쟁에 필요한 축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해 조선인들이 피땀 흘려 키운 가축은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역소와 소막의 전체 부지는 2만3725평, 건축면적은 3617평이었다. 검역소는 2층의 목조건물로서 현재의 양지맨션, 아신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 건물에 소막이 2~3개 있었는데, 소막 하나의 크기는 폭 52칸, 길이 152칸이었다. 1칸(間)은 약 1.8m에 해당된다. 자료에 의하면 1926년 우암동 소막은 19동이 있었고 소막 1동에는 40~60마리를 수용할 수 있었다. 우사 한 동에는 조선인 목부 한 명이 배치돼 아침 5시부터 저녁 6시 퇴근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했다. 당시 소막은 우암동 외에 인천, 원산, 성진, 진남 등에도 있었지만 우암동에 비할 바가 못 됐다. 일본에 수출된 소의 70%, 한해 3만 마리 이상이 우암리 부산항검역소를 거쳤다.

부지에는 검역소와 소막 외에 사무소, 숙박용 건물, 진료소, 격리소, 소각장 등이 배치되고 소형 열차인 경편궤도와 가스마루(勝丸)라고 불리는 발동기선도 있었다. 지금의 우암맨션 자리에는 기를 땀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역소는 부산항과 마주하면서 육로로는 접근이 어려운 공간에 위치하였다. 즉, 전염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분리하면서 동시에 부산항에서 감시가 가능한 곳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1925년 당시 검역소 관계자 대부분은 부산부에 거처를 두고 매일 작은 배로 통근하였다. 배들이 오고가면 선착장은 지금의 우암동 부산은행 자리로서, '적기 뱃머리'라 불렸다. 조선총회회사가 기증한 개 쓰마루를 타면 부산세관 감시과에서 검역소 잔고까지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검역소 부지 주위는 대부분 구릉이거나 산이었고 사무소 뒤편에는 일본인들이 할

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바다 수호신의 곧베라(金比羅)를 위한 신사가 있었다. 또한 사무소 맞은 편 구릉에는 도살되는 소의 혼을 위로하는 진혼비가 세워져 있었다. 당시 우암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검역소와 소막이 있는 소들의 땅이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소막은 소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 돌아온 귀환동포를 차치기 되었고 미군의 병사(兵舍)로 사용되기도 했다. 6·25전쟁 때에는 피난민을 위한 수용소가 되었다. 이후 용당동의 동명목재, 우암동의 성장기업과 조선선재, 문현4동의 광명목재 등이 새롭게 들어서거나 급성장하면서 이곳에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도 떠나자 점차 낙후지역으로 변해갔다. 현재 이곳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소 일본 송출 목적 대규모 '소막' 건립

해방 이후 해외동포 임시 수용소로 전환

한국전쟁 거치면서 소 대신 사람이 거주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옛 우암2동 주민센터 앞에 '수출 소 검역소 옛 터'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우암동 구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소막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나무 비늘벽에 기와나 슬레이트가 얹혀있는 맞배지붕 형태의 집도 있고, 솥을지붕이 있는 지붕에 파란 색 방수페인트를 칠한 집도 남아 있다.

우암동 소막은 피난과 일자리를 찾아 온 피난민들과 노동자들의 불안한 삶을 수용해 준 곳이다. 아울러 우암동이라는 공간의 형성과 역사 그리고 우암동 사람들의 삶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공용경(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일본의 '늦게 배운 고기 맛'에

조선땅에 한우 씨가 마를 지경

에나 지금이나 한민족에게 소는 가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역(소의 돌림병)에 대한 조선 사람의 공포는 소를 잃는 것이 자식을 잃는 것보다 심각해, 수의사에 대한 존경이 아주 두터웠다. 1919년 3·1운동 당시 일본인 수의사는 박해를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생떼같은 소를 왜 일본으로 보내야 했을까. '돈' 때문이었다.

일본의 육식문화는 역사가 길지 않다. 서기 675년 독실한 불교도였던 천황 덴무가 가족 도살을 금지하면서 1200년간 고기 없이 살아야 했다. 그러다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1872년 마침내 육식이 해금됐다. 근대화를 막 시작한 일본은 '탈아입구(脫



일제강점기 소막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우암동 골목을 스케치로 옮겨왔다.

일제 육식금지령 풀려 소비 급증

조선에 한해 10만마리 주문하기도

亞入獻)'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왜소한 몸을 백인처럼 만들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믿었다.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철욱 교수는 "당시 일본의 육류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해 외국에서 소를 수입해야 했다"며 "일본으로 소를 수출하는 것은 조선 농가의 큰 소득원이었다"고 설명한다.

'늦게 배운 고기 맛'에 한우의 인기는

일본인들에게 아주 높았던 모양이다. 1938년 1월20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1937년 한해 부산항을 통해 3만9618마리가 일본으로 보내졌고 이듬해 일본에서 "조선소 10만마리를 주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신문은 또 "이정도 규모라면 머잖아 수출할 소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생우 한 마리의 송출 가격은 70~80원 정도로 다소 높게 매겨졌다. 차 교수는 "생우 이슬은 강제된 게 아니라 일종의 국가 간 무역으로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식민지 매카니즘에 포함된다"고 했다.

■ 남구를 빛낸 문화·예술인 ⑤ 부산 문학의 태두 이주홍

코흘리개 꼬마와도 승부싸움

개구쟁이 같은 천재 문호



향파(向破) 이주홍(李周洪·1906~1987)에 대한 글을 쓰러니 앞에 거대한 태산이 서 있는 듯하였다. 선생은 경남 함천 분장에서 출생하여. 향리에서 지금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이것이 제도적 학교 교육의 전부이다. 뒤에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다가 1920년 상경하여 극장 앞에서 껌과 은단, 군밤, 담배 등을 팔며 야간학교를 다녔다. 고학하다가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 토목, 채탄, 광물, 식료품, 제약, 문방구 공장 등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주경야독하였다. 그의 꿈은 화가였다. 그의 말을 빌리면, 심심풀이로 썼던 동화 '뱀새끼의 무도'가 1925년 '신소년지'에 발표되었다. 1929년 '가난과 사랑'이 조선일보에 입선하여 본격적으로 문단에 발을 댈게 되었다. 그는 일본 광도에서 조선인 아동을 위하여 근영학원(惺英學院)에서 교편을 잡았다. 해방 후에 배재중, 동래중학교 교사를 거쳐 1949년부터 부산수산대학 교수로 지내면서 1958년에 부산아동문학회를 창립했고, 1966년 '문학시대'를 주재하였으, 구상·송지영 등과 '갈숲동인', 김정환·박지홍 등과 '윤좌(輪座)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의 문학사에 태두와 같은 업적을 남겼다.

향파는 소설, 시, 평론, 수필, 희곡, 시나리오 등 문학의 거의 전 분야에 작품 활동을 하였고, 아동문학가, 소설가, 수필가, 영화평론에도 활동을 한 그는 천재임에 틀림없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글을 쓰고 삽화, 만화를 그려서 '신소년'이란 잡지를 내기도 하였었다. 그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300여 작품을 남겼다. 한학의 대가로서 수호지 등 중국고전문학을 번역하였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통소는 명인의 수준이었으며, 중학교 교사 시절에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가 쓴 대본으로 연극 공연이 열렸고 서예와 그림, 전각, 도안, 만화를 그렸으니 그를 가리켜 종합 예술가라고 하여도 무방하리라.

그의 작품은 마치 메트로 해부하듯이 아동의 심리 묘사나 감정 변화에 대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재미, 교화(敎化), 심미성을 강조하는 예술성 아동문학보다 아동부터 성인들까지 풍자와 해학으로 재미를 중시하여 독자들에게 쉬운 문장으로 전달

하여 독자들이 많았다. 또한 구수한 사투리와 힘 있는 문장을 현실에 기초로 하여 썼기 때문에 그를 리얼리스트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는 어느날 박주홍 교수 집을 찾아와 교수의 코흘리개 아들과 돈치기를 해 돈을 다 따 가는 등 개구쟁이 같은 동심으로 글을 썼다. 그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부조리한 환경 즉 모순된 현실을 저항하고 비판하였다. 모순된 현실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직접적인 비판 보다 등장인물의 삶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었다.

호주가(好酒家)였던 그는 '맥주는 마실수록 깡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술이 취해도 몸가짐이 흐트러지는 법이 없는 선비였다.



부경대에 있는 이주홍 문학비.

어릴적 꿈은 화가

심심풀이로 쓴 동화로 단단

문학 전반 300여 작품 남겨

그는 주점에서 술 한 잔을 하다가도 일하는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를 하는 치기(稚氣)도 있었다. 그는 천재성만 지닌 것은 아니다. 붓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길가 간판 중에 좋은 글이 있으면 담아두었다가 집에 돌아와 그 글씨를 밤새 연습한 노력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부산수산대학 교수생활과 맞물려 대학의 관사에 거주하면서 남구와 인연을 맺었다. 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였고, 남을 즐겁게 한 문호여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강의시간에는 재담을 펼쳐 학생들이 그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하니 얼마나 명강의였는지 짐작이 된다. 정년퇴임 후에 온전장 자택에서 지냈는데 부인은 손님 술상 치다꺼리에도 꽤 고생하였으리라. 1972년 부산수산대학의 1호로 정년 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생활하다 81세 일기로 영면했다. 금강공원에 동시 '해갈이 달걀'이 적힌 문학비가 있다.

또 부경대학교 인문관 앞에 향파 이주홍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비에 '문학은 곧 발언이다. 인간으로서 원초적인 몸부림인 것이거나 자기가 처해있는 환경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것이거나 필경 얻은 발언 이상의 것일 수가 없다'라는 그의 정신이 적힌 글이 발견음을 멈추게 한다. **공기화(부산고대 명예교수)**

201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 조사기간 : 2014. 7. 1~8. 31
- 조사대상 : 각종 바닥면적(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 소유시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소유지분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지방문 실태조사
- 조사내용 : 시설물 증·개축사항, 면적 및 사용용도 등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준일 : 2014. 7. 31. (부과기간 : 2013. 8. 1.~2014. 7. 31.)
 - 납기 : 2014. 10. 16~10. 31. (전자납부 가능)
- 부과기준
 - 산출방법 : 시설물의 각종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규모, 급지별 차등적용(700원, 500원, 350원)
 - 교통유발계수 : 사용용도에 따른 유발계수 적용
- 납부무이자 : 2014. 7. 31.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 미사용신고 안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
 - 신고대상 : 30일이상 미사용시설물 소유자
 - 제출기간 : 시설물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2014. 8. 31. 까지
 - 납부정 교통행정과(주차과징담당) 제출(팩스, 우편 가능)
 - ※ 증빙자료 예) 부동산업대공급고객명세서, 휴·폐업사실증명서, 전기 및 수도사 용량내역서 등
 - 문의 : 남구교통행정과(607-4575)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이전에 수집 하였던 주민등록번호도 2016년 8월 6일 이전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했다더라도 관리 부주의로 유출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

정부에서는 이번 하절기 전력 부족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 제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주요내용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강제사항	냉방온도(28℃ 이상)제한	문열고 냉방 열일 금지
권장사항	-	냉방온도(26℃ 이상)권장

- 시행기간 : 2014. 6. 30. ~2014. 8. 29. (9주간)
-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2014. 7. 7.부터 위반업소에 대하여 1회 경고 조치 후 과태료 부과 (1회)경고→(2회)50만원→(3회)100만원→(4회)200만원→(5회 이상)300만원
- 문의 : 남구 경제진흥과 ☎607-4471~5)

작은 사랑 큰 실천, 남구동행푸드마켓과 함께 하세요

- ♣ 푸드마켓(foodmarket)이란?
 -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 장터로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 마켓입니다.

- ♣ 기부는 어떻게?
 - 무엇을 주시류, 부식류, 간식류, 식재료, 기타생활용품 등
 - ▷유통기한 지난 것, 중고품은 안됩니다.
 - 어떻게 전화만 하세요 물품도 가져가고 기부 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 ▷남구동행푸드마켓 ☎638-1377
 - 남구 진남로 102(남구청 뒤편 오양양지맨션 맞은편)

- ♣ 후원자 세금 혜택(환가액 기부영수증 발급)

2014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014. 7. 28. ~8. 6. (8일간)
 - ※ 2014. 8. 7.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법적근거의 미비에 따라 조기접수 시행

- 사업기간 : 2014. 10. 6. ~12. 19.

- 모집분야
 - 일반노동사업 : 옥외 사업 희망자
 - 행정보조사업 : 실내 업무보조

- 선발인원 : 약 70명 내외

- 접수처 :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신분증, 가정집대 증빙서류,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남구 거주 만18세 이상(1996.10.6.이전 출생) 근로능력있는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 참여배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세대 2인 이상(청년 미취업자는 제외),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및 중도포기자, 연속 3단계사업 참여자, 공무원가족,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임금기준 : 시급 5,210원, 부대경비 3,000원 별도

- 근무조건 : 1일 7시간(09:00~17:00) 주4일 근무
 - 행정보조(청년일자리)사업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 선발결과 : 선발자는 개별 통보(2014.9.30.~10.2. 탈락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